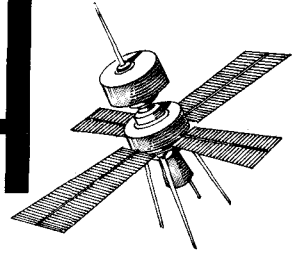


이달의

인제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종계수입 농수산부장관 추천받아야

85년 7월 1일부터 종계수입절차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종계업자이면 누구라도 은행에서 수입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은행에서 신용장(L/C)을 개설해 준다.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가축의 수출입요령 홍보 의뢰공문(축산 27427-1032 85. 6. 1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 31 참조)

수입을 개방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귀찮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불평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축산법을 개정해서 천수 이상의 종계와 3만수 이상의 산란계, 만수 이상의 육계사육업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생산조절을 명할수 있도록 하여, 수급 조절로 가격을 안정시

키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반 실용계 사육도 조절을 하지만 원천적으로 종계의수



산동물 수출입요령 총괄

품 목	수 출 요 령	수 입 요 령	관 련 법
말(조랑말)	제주도지사추천		무역거래법
소			
중우용소	농수산부장관추천	좌 동	축 산 법
중우이외의 소	축협중앙회장추천	좌 동	무역거래법
돼지			
종돈	농수산부장관추천	좌 동	축 산 법
기타	축협중앙회장추천	대한양돈협회장 추천	무역거래법
가금류			
종계	농수산부장관추천	좌 동	축 산 법
수당185g초과종계이외의닭		대한양계협회장 추천	무역거래법
기타의 산동물			
공작(인공사양의 것)		시·도지사의 수입허가	조수보호법
앵무새			
기타(인공사양의 것)			
꿀벌		농수산부장관 추천	무역거래법
사슴		농수산부장관 추천	무역거래법
기타(농가입식용여우)		시·도지사의 수입허가	조수보호법
조란			
(종란)	농수산부장관추천	좌 동	축 산 법
동물의 정액			
소·돼지의 정액	농수산부장관추천	좌 동	축 산 법
(수정란포함)			

입을 정부가 조절하고 국산종계도 축산법에 의 하여 생산조절을 함으로써 과잉생산이나 공급 부족을 막으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과거처럼 법이 있는데도 법이 법으로서의 구 실을 못한다면 법의 존엄성을 위해서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 다.

가축의 수출입요령해설

'85. 7. 1부터 시행될 상공부의 '85하반기 및 '86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에 따른 지상보도에 의하면 (예: '85. 5. 29자 한국경제신문) 중우, 종돈, 동 물의 정액이 수입자유화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다수 축산인으로부터 의문 및 질의가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품목이 기별공고에서 제외된 배경

지난 '84. 8. 2 공포된 개정 축산법에 따라 중축 등의 수출입은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축산법 제5조의 2) 그 대상은 소, 돼 지, 닭과 종란 및 소, 돼지의 정액과 동 수정란으 로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 4) 되어 있어 금번 개 정 작업 과정에서 이를 특별법(축산법)에 의한 통 합고시로 재분류 고시한데 있음.

○'85하반기 이후 수입요령

무역거래법에 의한 기별공고 및 특별법에 의한 통합고시에 의한 산동물의 수출입요령은 별표와 같 으며 수입자유화 된것이 아니라 농수산부 장관의 추천품목으로 고시되어 있음.

계란 1 개 26 원

아침 점심 저녁 때를 가리지 않고 주택지 골목에서 계란을 가득 실은 리어커나 타이탄 트럭을 흔히 볼 수 있다.

60개 2천원! 마이크에 대고 소리높이 외친다. 도대체 계란 한개 생산비가 얼마인데 소매가격이 33원까지 한단 말인가? 마이크소리는 계속 골목을 누빈다. “플라스틱 다라에 담아 드립니다’

계란을 사면 플라스틱 용기까지 덤으로 끼워 주니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계란값 폭락후 이들 행상이 많아져서 소비는 증가되지만 소비자들에 계란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 줄까 보아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플라스틱 그릇들을 끼워주지 않으면 계란을 사지 않든가, 또는 계란에 대한 열등 식품의 인상은 계란소비 증가를 위해서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계란 1개에 농장에서는 26원에 판매된다. 이렇게 폭락한 계란가격은 언제인가는 다시 상승하고 그때에는 수입이 검토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몇 년전 사우디에 계란을 수출할때 선적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품질

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우리의 계란가격 등락진폭이 길어야 2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계란도 비축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매 80원까지 하던 계란값이 35원으로 폭락



하고 그것도 플라스틱 그릇까지 끼워주니 가히 70~80%의 대 바겐세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그나마 행상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계업자는 90%로 할인 판매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거저 줄 것이냐를 심각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하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거저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게 계란을 거저 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 양계업자들 요즘 고민이 많다.

적정생산 · 적정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업